**마1311 Note**

**◆ 이정표: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 - 존 물린디 목사**

예를 들겠습니다. 사울과 다윗은 비슷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.

둘 다 동물을 돌봤고, 둘 다 왕과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고, 둘 다 사무엘 선지자의

기름부음을 받았고, 둘 다 죄를 지었고, 둘 다 죄를 고백했습니다.

다윗은 용서 받았지만, 사울은 용서받지 못했습니다.

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?

사울의 삶을 보면, 사울은 사무엘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지내야 하는 시간이 늦어지자

사무엘 제사장이 조금 늦었지만, "사람들"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하자

대담하게 자신이 해서는 안 되는 제사를 주관합니다.

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와서 말합니다. "무슨 일은 하신 겁니까?"

당신 집을 하나님께서 왕의 가문으로 세웠는데 이제는 그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

주셨습니다.

사울의 문제가 뭡니까?

 <사람들>이 흩어져 가기에 대담하게 마음먹고 제사를 지냈습니다.

하나님이 다시 사명을 주고 전쟁에 보냈을 때도 얼핏보면, 사울의 불순종이 아닌 것

같습니다.

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'사울을 택한 것을 후회한다 그를 왕으로 만든 것을

후회한다' '그가 한 짓을 보아라'고 하셨습니다.

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자 사울은 말했습니다. '임무를 완수했습니다'

‘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가축의 울음소리는 무엇이뇨?'

'사람들이 원해서 허락했습니다.'

'순종이 제사보다 낫다하지 않으셨습니까?'

사울이 그것으로 제사를 지낼 계획이라 사무엘이 물었습니다.

사울이 한 말은 이것입니다.

'제가 사람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.'

사울은 사람들 앞에서 살았습니다.

그리고 고백했습니다. '제가 하나님게 죄를 지었습니다. 제발 저와 함게 가서 사람들

앞에 제 체면을 세워주세요'

사무엘이 거절했습니다. 사울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았고 옷이 찢어졌습니다.

사무엘은 사울에게 말했습니다.

'옷이 찢어진 것처럼 이 나라가 당신의 손에서 찢어져 떠나갈 것이오'

사울이 뭐라고 했습니까?

'하나님과 당신에게 죄를 지었습니다.' '그러나 사람 앞에서 제 체면을 살려주세요'

이렇게 깨어지는 순간에도 사울은 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.

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"너가 언제까지 사울을 위해 기도하겠느냐? 나는 그를 버렸다"

다윗도 죄를 졌습니다.

간음을 했고 살인을 했고 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직면시키자 다윗은 판단까지

했습니다.

나단이 다윗의 죄를 말하자 " 아!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"

다윗은 용서받았습니다.

두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?

<행동>의 차이가 아니라 <태도>의 차이입니다.

성경은 다윗이 <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>라고 합니다.

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따랐습니다. 다윗도 다른 사람들처럼 넘어졌습니다.

그러나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원했습니다.

그것이 차이점이었고 하나님께서 제게 그것을 직면시켰습니다.

주님은 제 행실과 태도를 벗어나 주님의 길로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셨습니다.